

일용직 경희가족속의 이방인

교내특집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실태를 알아본다

본교 일용직 고용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정식직원 채용문제가 지난 89년 단체협약 개정이후 다시 부각됐다.

89년 단체협약에서 일용직 고용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관리·환경직 결원충원은 현 일용직을 정식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년 인사규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학교측이 수용하여 '90학년도 상반기중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식 채용할 것'이라는 답변을 줬었다.

그러나 현재 서울캠퍼스 관리·환경직종에 근무하는 8명의 일용직 고용자중 아직 한명도 정식채용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학교예산의 중핵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해 예산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없는 데다 현재 일용직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수급계획

에 차질이 생기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타대학들도 '일용직'을 '용역'으로 대체하는 추세여서 본교도 일용직의 증원대신 용역회사에서 4명의 기사사 청소등을 맡고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용직의

등 현실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 아직까지 곪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지원과 현실성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고용안정을 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들어 노동탄압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수지

근로쟁을 벌이는 한편 학생회와 연계해 '부당해고'에 대한 선전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학교당국은 해고통지한 사실을 부인하고 고씨를 그대로 근무케 함으로써 표면적으로 일단락됐다.

노동조합은 고대환씨 사건과 관련, 지난 26일 교직원총원과 일용직의 정식직원채용은 양질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일용직의 노조가입 문제는 노동관계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해고통지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조합측도 고씨의 노조가입원서를 거부한채 공식적

정식채용 합의한 단체협약 이행안돼 학교, 예산부족·인원 수급문제로 난색표명

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재계약하는 불편과 장기근속에 따른 혜택이 없어 직원과 실질적인 차별이 많이 있다.

이에 작년 6월 당시 노동조합의 '일용직 고용자의 정식직원채용' 등에 관한 요구가 재차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근로의욕과 소속감의 저하가 나타나는 상태이다. 매년 일용직 고용자들의 요구와 학교당국의 재정상태

악화등 경제여건에 따른 이러한 불완전 고용은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일용직 고용자들의 근무조건이 이러한 가운데 며칠전 학생회관과 A.V센터에서 근무하던 고대환씨가 총무과로부터 재고용 계약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문제의 불씨가 생겼다.

이에대해 고씨는 학교당국에 해명을 요구하며 다음날부터 출

근고유가 불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 고용 또는 일용직이라는 취약점을 학교측이 어떻게 이용한 데는 이해할 수 없는 소속감을 갖고 학교당국에 해명을 요구했다.

고씨는 5년동안 본교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경희대학의 일원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다고 판단. 이를 같은 일용직과 함께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씨는 법률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는 2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었으나 2개월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면 해고시에 사용자가 예고를 해야하며 또는 해고수당,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 구두해고통지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인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확한 해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로써 최근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개편된 후 직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권익향상에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노조내부의 비판조차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고용자 8명은 정식직원이 아닌데다가 기본적인 권익보호 및 요구사항을 해결할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노조가입을 통해서라도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용직 고용자의 노동조합가입과 고용안정문제 등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도 재정상태가 허락된다면 일용직 고용자도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경희가족의 일원으로 불이익이 없게 해야겠다

(김기태 記者)

미니 시리즈...교수학회를 진단한다(完)

인간복지 향한 제3 의학

대한 재활의학회를 찾아

미니시리즈 '교수학회를 점검한다'가 이번호를 끝으로 마친다

본교 교수 가입 학회를 위주로 한 이번 시리즈는 그동안 신생활, 시사적인 내용과 관련된 학문, 그리고 독특한 학문을 내용으로 하는 학회가 개제되었다.

학회활동을 취재하면서 대부분의 학회들이 학회원들의 참여를 저조로 명분상으로 남아있거나 학회운영 방식이 관성화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시리즈가 학회간의 정보와 학문교류의 장이 되어 학회 활성화와 학회원들에게 일정정도 자극제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편지자註)

초기의학은 당장 세균의 감염을 받은 급성질환의 치료에만 급급했으나 의학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당장 목숨에 관련된 질병의 치료가 정착되어 가고 따라서 이제 단순히 치료만이 아닌 치료후에 남게 되는 장애의 예방과 극복사회에의 재활을 다루는 의학이 대두되어왔으며 이른바 제3의학이라 지칭되는 재활의학이 그것이다.

재활의학이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잔존기능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써 그들 자신과 가족, 사회에 있어 최대의 만족과 유용성을 갖게 하는 의학이다. 우리나라에서 재활의학이란 명칭이 처음사용된 것이 재활의학회가 설립된 1972년이요 최초로 전문의사가 양성된 것이 1983년 일 정도로 재활의학은 최근에 도입된 의학이며 이 의학을 이끌어가는 의사들의 모임이 '대한재활의학회'이다. 재활의학은

전문이사부족으로 중대한 치료 어려워

비교적 장애인자와만 관계가 있고 다른 의학분야에 비해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활의학은 신경계학, 정형외과의 다른 의학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한 전체 환자들중 재활의학과 관련된 환자는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전문의사로만 구성되는 학회인 탓에 구성원이 적은 것은 전문의사의 부족현상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현재 4만명이 넘게 소속되어 있는 의학협회 의사들중에서 학회원은 2백명, 학회원중에서도 재활의학전문원은 1백25명뿐이다.

전문의사의 부족현상은 재활의학 자체가 신생학문이라 의사들이 다른 의학분야에 비해 많이 양성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각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재활의학의 부재에 있다. 본교에서도 의과대학6년의 교육과정중에서 재활의학에 관한 과목이 하나도 설치되어있지않아 이 인원육성의 문제에 일조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의사의 부족때문도 재활의학이 지닌 문제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이나 기계·기구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있어 우리나라 재활의학의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

본교 교수중 유일하게 '대한재활의학회'의 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경희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활의학에 관한 정책적·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한편 대한재활의학회는 총회가 1년에 1번, 학술대회가 1년에 2번, 친목과 학회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월례집담회가 1년에 6회정도 있으며 학회원들의 논문이 실린 '의학협회지'를 4회 발행하고 있다.

(이수정 記者)

한국체조의 금자탑



'91 세계 체조 선수권 뽀뽀부분 우승

유옥렬(체육학·1)군을 만나



힘들 때마다 힘이 돼준 과동기와 주변사람들에게 감사해...

유군은 체조명문학교인 수원북중과 수원농고를 다녔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체조에만 열중하였으므로 대학에 들어와서도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 태권도수련에서 매일 훈련을 할 정도로 학구파적이며 성실한 자세를 보여와 주위사람들로부터 칭찬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다.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이룬 것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준 과동기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며 친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군은 이번 대회에 같이 참가한 정진수(체육학과·1)군이 저조한 성적을 보인 것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까지 든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처음에는 마루운동에 기대를 걸었는데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아 실패했고 뜻밖의 뽀뽀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는 유군은 89년 국가대표로 발탁된후 계속 선수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대비해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끝으로 유군은 "얼마 안 남은 전국체전과 올림픽에서 마루운동과 뽀뽀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 이번 수상이 결코 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성실한 훈련을 다짐하였다.

(서동국 記者)

朔風

한가위속에 깃든 '溫故知新'

'한가위' 즉 추석이란 조상에 대한 큰 감동을 뜻한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6부시절 부터 추석을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왕이 6부를 두페로 나누어 7월 보름이 지난 날 부터 8월 보름 전날까지 길쌈을 하게 하여 그 성적을 평가 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진패는 주식(酒食)을 차려 이긴 패를 대접했다고 한다. 추석이 우리나라만의 명절은 아니다. 중국은 중추절(仲秋節)이라 하고 일본은 십오야(十五夜)라고 부르며 명절을 지내지만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크게 지내고 있다.

추석날에는 첫째, 조상에 차례(茶禮)를 지내고 산소에 성묘를 간다. 이 차례나 성묘에는 햇밥과 햇떡을 올린다. 이런 신물(新物)을 올리는 것은 천신의 의미를 지니는 조상숭배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째, 달구경을 가기도 하고 씨름을 하기도 하며 투우를 벌리

기도 한다. 맑은 가을의 보름달은 우리 생활의 청신함과 풍요로움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이날 등근 과일을 먹는 여자들은 아이를 잉태했다고 한다. 달은 어머니요, 또 달은 여자의 생식기능을 조절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한다.

또한 씨름은 힘을 겨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누가 힘이 더 세서 농사일을 열심히 했는지 겨루어 보는 것이다.

이런 추석을 한가위라 부르는 것에는 특별한 뜻이 있다. '값'이 부드럽게 변하여 '가위'로 되어서 '큰값'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석때 배놓을 수 없는 절식(節食)은 송편이다. 우리나라 떡은 그 종류가 수십가지로 '규합총서(閏閏叢書)'에 만드는 방법을 적은 떡만도 28종류나 나오는 것이다. 둘째, 달구경을 가기도 하고 씨름을 하기도 하며 투우를 벌리

보름달의 모양처럼 둥그렇게 빗기도 하고, 반달 모양으로 빗기도 한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월병(月餅)이라고 하는데 이는 솔잎을 깔아 찰진 송편이 붙지 않게 하기 위한 것과 송편에 적당한 무늬를 찍어 주기도 하며 쉬지 않고 독특한 향내를 풍기기도 한다. 추석은 태음력으로 따져 가을 중 간달 보름이다. 저녁 석(夕)자가 붙은 것은 이날밤 달구경이 어김없이 곁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을의 중간은 햇곡식이 익고 과일이 소담스레 영그는 절이다. 육당(六堂)은 이날을 두고 이렇게 찬미했다. "그로부터 근심대신 기쁨이 소복히 담기니 원체 한탄 놀란 한때 술을 먹기에 밤이 짧을가, 춤을 추기에 밤이 걱정일가, 돌아보면 험악이던 여름이요, 내다보면 웅크릴 겨울이니, 이때를 놓치지않고 어느때를 기다리라"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곡식이 늦게 영

글고 있다. 추석 때도 들뜬은 아직 누런 빛깔이 보다는 푸른 빛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일기예보에 막강한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다 한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농부들이 더운 여름 고생한 곡식을 썩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옛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빠르게 변해 가는 사회구조속에서 뒤를 돌아볼 수 없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쁜 길도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세월이 흐를수록 고전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운이다. 생활 구성요소에서 조상들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때 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조상들의 깊은 뜻과 슬기가 바탕이 되어 생활화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우리의 정신문화가 뿌리 내리지 않을까하는 작은 바람이다.

(배예로)

남 여 대학생 흡사원 아르바이트 모집

저희 (주) 유로 엑스포는 BC 각국의 박람회 참가하여 쌓은 수·출입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기업으로서, 내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고소득을 보장하면서 사회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중 시간에 구애없는 흡사원제도를 창안, 뜻있는 학생들을 찾습니다. 흡사원이란

출·퇴근이 필요없으며 시간에 구애없이 여가 시간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모자격

모집부문	인원	응모자격
영업직및영업관리직	0명	서울시내 남·여 대학생

2. 입사서류

- ①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초본1부
- ② 학생증 앞·뒷면 복사
- ③ 사진 2매
- ④ 가입신청서 (회사 소정양식→오리엔테이션 행사장에서 배부) -----1부
- ⑤ 은행통장이 입금 승낙서 (회사 소정양식→오리엔테이션행사장에서 배부) -----1부
- *제일은행(전국)구좌를 개설하여 오십시오 (용도: 수당 및 상여금 입금용)

3. 특 전

우수학생은 등록금 및 유럽여행이 주어집니다.

4. 오리엔테이션 장소 및 일시

일시: 1991. 10. 12일(土) 13:00 까지 참석바람.
장소: 삼성동 무역센터 (55층 옆건물 전시장 본사 4층 소회의실)

불은수입, 특특금 제공, 유럽여행이 해결됩니다. 오셔서 확인하십시오. 오리엔테이션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 소: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12-47 명진빌딩 2층
문의처: (02) 470-1092~1094

(주) 유로 엑스포

졸업 후 가 염려 되십니까?

4년간 풍부한 지식과 교양을 쌓았어도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4년간의 대학생활을 보내면서 6개월만 정보화 사회가 필요로하는 첨단기술을 습득하는데 투자하여 전문인이 되십시오. 바로 새로운 미래가 개척될 것입니다.

강좌 안내

- 전자출판과정
워드프로세싱, 그래픽, 영상편집, 디자인, 이메일제작, 도식, 신문, 잡지제작
- 컴퓨터 그래픽과정
2차원, 3차원 렌더링,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개설했습니다.
- 연구조사방법론
학위논문 작성의 주제선정에서 설문지 작성법과 실증분석까지.
- 시장조사 방법론
기업의 각종 사례 중심으로 조사 기획서 작성법, 설문조사, 보고서 작성법.
- SAS를 이용한 조사통계 분석
기초통계 이론부터 예제 프로그램의 실행 및 결과 해석까지 완벽한 자료분석.

상담전화: 325-2094, 5
2호선 홍대 전철역 입구 신촌전화국 뒤 태양빌딩 4층

이그라피어 연구소



유학과 TOEFL준비는...

ELS 집중영어코스

개강10월14일/등록10월3일부터

1일6시간씩 단기집중교육

학생·직장인·주부를 위한 1일3시간·2시간 코스

● ELS란?

ELS는 미국 교육성이 교육의 질을 인정하는 "Accredited School"로서, 30년 동안 전세계 50만명의 학생에게 영어만을 가르쳐온 정통 영어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 ELS 교수진

ELS교수진은 TESL(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전문가들로, 전원 Native Speaker입니다. 수업은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 수료증 발급

본교가 발급하는 수료증은 미국 21개 ELS Language Centers에서 통용되며 미국내 약 400개 대학에서 TOEFL대신으로 인정합니다.

*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새벽반개설

● ELS종로 TEL:278-2902/3

● ELS강남 TEL:554-9191/4

* 토·일요일에도 전화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시사영어사 직영

ELS Seoul